



박소현의 섹.시.토.크

"다시 사랑이 하고 싶다." 우리는 적당히 달궈진 대로변 휴게소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시 외곽에 있는 오리고기 집에서 점심 먹고 나오던 길에, 자판기 커피나 한잔 하자고 잠시 멈춘 길이었다.

분에서 친구는 키스가 아니라 입맞춤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했다.) "입술이 그저 살짝 닿았을 뿐인데도 눈곱이 파르르 떨리더라. 나한테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가 싶더라구."



일은 도통 없지." 대로변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고 입술 마늘냄새도 여전히 짙지만, 우리는 차츰차츰 친구의 낭만적 분위기에 동화되어 갔다.

기웃거리는데 연애 말고 손만 잡아도 가슴 떨리는 그런 연애를 해 보고 싶다고." "서로 눈만 쳐다보면서 밤새고 말이지."

산전수전 다 겪은 남녀가 손만 잡고 긴 밤을 보내는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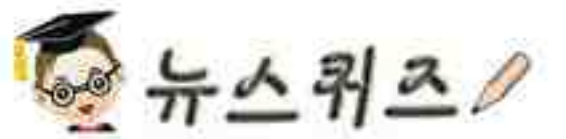
분명 손잡고 키스하고 여관 가는 데까지 이들 이상 안 걸릴 걸. 장담할 수 있어." 왜 산통 다 깨냐는 듯 다들 그 친구를 흘려 봤다.

루비콘 강을 건넌 사람들

났다. 밤마다 그냥 자는 남편들 때문에 입이 텅텅 나 나왔으면서 무슨. 산전수전 다 겪은 남녀가 손만 잡고 긴긴 밤을 보내는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야."

"그런 관계가 의미 있는 건, 그런 순수가 필요한 시기와 맞아떨어질 때의 이야기. 우리는 이미 그 시기를 지나왔잖아. 그걸 다시 반복해 봤자 그건 일종의 '쇼'나 다름없잖아. 알면서 모르는 척 내놓는 게 뭐가 순수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친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배우처럼 멋지게 마지막 대사를 날려 주었다.



67. 지난달 프랑스 칸에서 열린 제60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여배우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검색절정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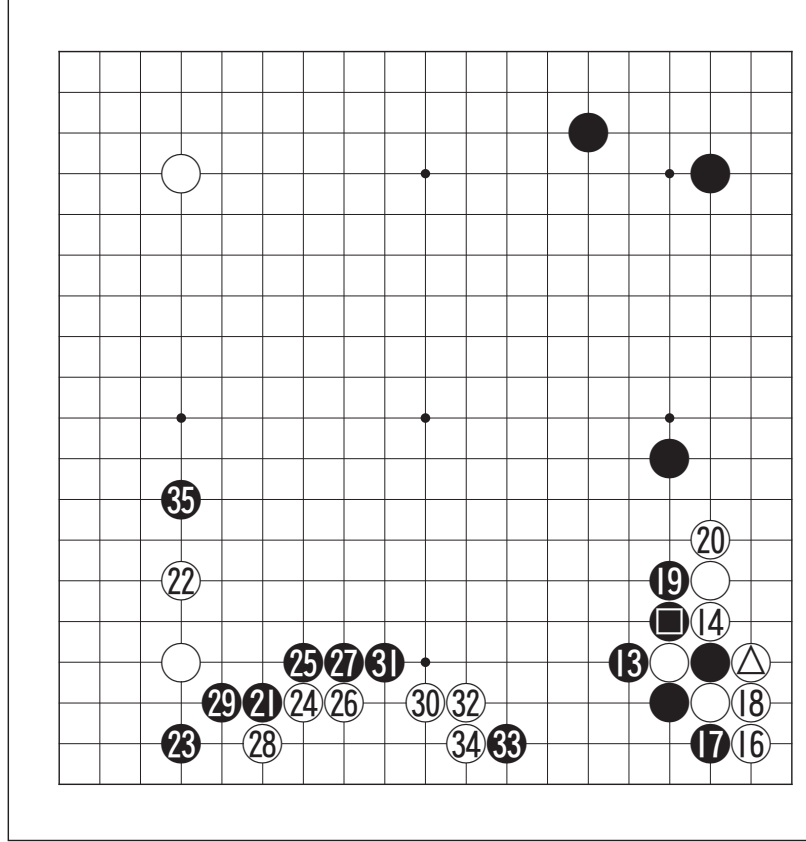
연애 전문 리포터 조영구(40)와 쇼호스트 신재은(29)이 사귀는 것 맞아? 노총각 MC 조영구와 쇼 호스트 신재은의 열애설이 인터넷을 달궜다.

정형돈 결혼설 진짜일까? 네티즌 관심 증폭

는 했지만 열애설과 결혼설까지 단계는 아니다" 고 밝힌 반면 신재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 얘기가 오갈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총각 MC 조영구와 열애설에 휩싸인 쇼호스트 신재은.



진기한 형태 2보(13~35) 흑 최한용 5단 (조선대) 백 백동원 5단 (광주시청 A)

바둑소식 조훈현 9단, 지지옥선배 2연승 조훈현 9단이 7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회 지지옥선배 17국에서 이민진 5단을 243수 끝에 흑 불계로 꺾고 2연승에 성공했다.

굿모닝 잉글리쉬 <922>

I have a toothache 치통이 있어요 A:Your check looks swollen. B:I have a bad toothache. A:A toothache is very painful and hard to bear.

오하유우 니혼고 <922>

何がよろしいですか 무엇이 좋겠습니까 A:遠(とお)くから來(こ)られて、お疲れ(おつか)れになったでしょう。 B:いいえ。遠(とお)いと言っても車で1時間(いちじかん)かかりませんから。

니하오 쑹구위 <113>

这饺子非常好吃 이 만두 정말 맛있다 A:这饺子非常好吃。 Zhe jiaozi feichang haochi. B:这是邻居刚送来的。 Zhesi linju gang songlai de.

한자 이야기 <539>

附和雷同 (부화뇌동) 불을 부, 화할 화, 우뢰 뇌, 같을 동 부화뇌동(附和雷同)은 본래 뇌동(雷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